

◎ 「미래의 韓國社會와 韓國人」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는 學術會議가 지난 9月 16, 17日 梨花女大 경영관에서 열렸다. 韓國社會學會와 現代社會研究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愼篤度교수(서울大)의 「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」, 朴永信교수(延世大)의 「韓國社會發展論」 등 발제 강연과 2개 분과의 분과별 주제 발표를 통하여, 10명의 사회학자가 10~20년 후의 한국사회의 정치, 문화, 종교, 가족, 인구, 도시와 농촌, 과학기술, 사회계층, 교육, 청소년 등에 관한 다각적인 전망을 한 주제 발표를 하고 30여명의 학자가 토론을 벌였다.

◎ 漢陽大 부설 音樂研究所가 지난 9月 22日 창립기념식을 갖고 발족되었다. 동서양 음악에 대한 폭 넓은 理解와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研究活動을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을 두고, 앞으로 세미나 개최와 음악용어 정리 등의 出版事業을 펴 나갈 예정이다. 또한 이 음악연구소는 22日 「서양음악 理論의 체계확립과 이에 따른 教育에 관한 問題點」을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었으며 오는 11月 하순에는 研究發表會를 가질 계획이다. 초대소장은 李如辰 教授(漢陽大)이다.

◎ 西江大 부설 產業問題研究所와 西獨 이벤트研究所가 공동 주최한 學術會議가 「韓國의 勞動問題, 그 現況과 課題」란 주제로 지난 9月 23日 부터 25日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. 이 모임에서는 沈泰植 慶熙大 總長이 기조연설을 하고, 노동에 관계된 주요 과제를 7개 분야로 나누어 그 研究成果와 展望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.

◎ 國立工業試驗院과 亞洲大學校는 지난 9月 28日 시험원 강당에서 產學研究協同 합의자서를 교환함으로써 產學研究協同을 통한 공업기술의

발전과 공학교육의 향상을 기하게 되었다. 이 합의자서의 내용은 國立工業試驗院이 아주대에 시험원의 시험분석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大學院의 研究를 위한 실험분석의 시설대여 및 실험분석을 대신해 주며, 亞洲大는 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연구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지원을 도와주고 시험연구원의 대학원과정을 受託教育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 國立試驗分析專門機關과 大學간의 研究를 위한 산학협동의 기틀을 마련한 이번 일을 계기로, 국립공업시험원은 產學協同의 협조 폭을 넓혀 大學 및 民間企業으로 계속 확대키로 했다.

◎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창립 25주년 기념 제14회 東洋學 學術會議가 10月 4,5日 서울 올림픽아호텔에서 있었다. 「東아시아 近代化 과정에 있어서의 각국의 특징」을 주제로 많은 내외 학자들의 연구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 학술대회에서는 中國관계에 田中正俊교수(東京大), 閔斗基교수(서울大), 日本관계에 朴忠錫교수(梨花女大), 柳根鎬교수(誠信女大), 韓國관계에 旗田龜교수(京都大), 成大慶교수(成均館大)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.

◎ 전국 72개 大學 새마을研究所長協議會(회장 李瓊鉉 서울大 교수)가 10月 22日 서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창립되었다. 각 대학의 歷史·哲學·經濟·社會學 교수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새마을운동의 長期發展에 관한 전략과 國家發展에 필요한 이념적 토대 및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해 共同研究를 하게 된다. 이 협의회는 전국 13개 시·도에 支會를 설치하고 7백 46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며, 각종 국제회의 개최 등 새마을운동의 國際化 작업도 구상하고 있다.